

인문학논총

The Journal of Humanities

2016, Vol. 42, No.8, 183~215

청소년동반자의 부모상담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노성덕** · 정재우*** · 김태성**** · 김경희*****

· 이미현***** · 배희분*****

본 연구는 청소년동반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에서의 부모상담에 대한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전체 청소년동반자 1,044명 중 설문에 응답한 366명이었다. 설문지는 총 66문항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정보, 부모상담의 중요성과 진행방식, 다양한 상황에서 겪는 부모상담의 어려움 정도,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안 등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동반자가 경험하는 부모상담의 어려움을 범주화하여 살펴보았고, 청소년동반자의 학력, 연령, 결혼여부 등 청소년동반자의 특성에 따른 부모상담의 어려움의 정도를 비교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청소년동반자 사업에서의 부모상담의 어려움 실태를 파악하여 추후 부모상담 매뉴얼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청소년동반자, 부모상담, 청소년상담, 부모상담 어려움, 실태조사

* 이 논문은 2015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수행된 연구를 요약한 것임

** 노성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본부장 / rhomio@kyci.or.kr

*** 정재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부장 / che73@kyci.or.kr

**** 김태성/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선임상담원 / hycounsel@kyci.or.kr

***** 김경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선임상담원 / kkh@kyci.or.kr

***** 이미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원 / meeohyun@kyci.or.kr

***** 배희분/ 상명대학교 아동청소년상담학과, 교수 / baeheeboon@hanmail.net
/ 교신저자

I. 서론

여성가족부(2010)에서는 우리나라 위기청소년을 87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들 위기청소년 유형을 보면 대개가 가출, 학업중단, 성매매, 자살, 비행, 정신건강 문제 등 가정의 보호체계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렇듯 가정의 보호체계와 관련된 청소년의 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 2005년도부터 시작된 청소년동반자 사업은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송은, 2011; 송원영, 송미경, 노성덕, 이대형, 김호정, 박선경, 김현진, 2011; 오경자, 배주미, 양재원, 2009; 홍나미, 2012; 박음미, 최희철, 2015). 청소년동반자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청소년상담 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위기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협력 지원을 발굴·연계 하며,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지원 할 수 있는 상담 전문가’이다(여성가족부, 2016). 즉, 청소년동반자는 상담자의 역할과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 연계하는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필요한 경우 문제가 되는 환경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개입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여성가족부, 2016).

이러한 청소년동반자 사업이 가정의 보호체계와 관련된 청소년 위기문제에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청소년 외에 가족에 대한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상담에서 청소년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부모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하게 되는데, 부모가 청소년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돋고 상담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부모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자들은 부모상담이 중요한 요소이고 상담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제안하면서, 그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김광웅, 2009; 김광웅, 김화란, 2006; 기채영, 2006; 신숙재, 한정원, 2000; 신현정, 2008; 유미숙, 1997; 이혜자, 2008; 주선영, 김광웅, 2005; 최명선, 김광웅, 2005; 최선미, 2003; Greenwald, 2002; James, 1997; Knell, 1993; Kottman, 1995).

특히 Greenwald(2002)는 부모가 상담에 협조하면 청소년상담의 효과가 크다고 하였고,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청소년과 전문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Arnold(1978)는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부모는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상담자라고 제시하며, 상담자는 부모와 동맹을 맺고 부모에게 상담의 보조자 역할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Schaefer(2006)는 효과적인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지지와 협조가 필수적이며, 청소년 상담에서 부모상담을 병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 하였다. 보통 부모들은 자신들을 위한 상담을 요청하지 않지만, 부모들의 도움과 공감적인 지지 없이는 자녀가 완전히 상담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상담자에게 전해지는 긍정적인 전이가 필수적이며, 성공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와 작업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하였다(전혜리, 2010).

또한 많은 연구자들은 부모가 자녀 감독에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청소년의 위기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고정자, 2005; 김은이, 오경자, 2014; 김현수, 김현실, 2000; 오경자, 김은이, 도례미, 어유경, 2005; 이웅택, 이은경, 2012; 이상균, 2009; Greenwald, 2002). 이웅택과 이은경(2012)은 부모의 긍정적인 관심과 지도가 청소년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애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청소년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났다. 이상균(2009)의 연구에서도 초기 청소년기에 부모 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비행행동을 좀 더 수월하게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오경자, 김은이, 도례미, 어유경(2005)은 부모 지지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빈곤가정 청소년들이 폭력행동 등 외현화 문제와 우울 등 내현화 문제를 겪을 때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문제해결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부갈등, 부모의 정신건강 등 부모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은이와 오경자(2014) 역시 부모 정신병리, 가족 역기능 등의 위험요인이 청소년에게 정서문제와 행동문제 등을 야기하여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청소년동반자가 상담하는 수혜 청소년의 위기문제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비행, 우울 등이 부모의 태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동반자가 만나는 대상청소년의 가족구조는 이혼, 한부모가정 등 해체가정이 많다. 또한 청소년동반자들은 자살, 폭력, 가출, 인터넷중독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고위기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부모 상담이 필수적이며, 청소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권현용, 2013; 김동일, 최수미, 2008; 노성덕, 이대형, 2011; 박소영, 2014; 박한샘, 고은영, 2009; 서선진, 송원영, 2012; 오경자, 이기학, 지승희, 2009; 임고은, 이동귀, 2014; 장정연, 1998 ; 정재우, 2013; 한상임, 2010; 한상철, 2008; 고스케 유코, 2012).

청소년동반자들도 부모상담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느끼고 있다. 청소년동반자 대상 선행연구 결과,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대다수의 청소년동반자들이 부모와 가정의 영향력을 보고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가족 구조와 역할,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등 가족요인을 꼽고 있다(황순길, 손재환, 전연진, 송미경, 김태성, 명재신, 양민정, 허미경, 김남희, 2014). 즉 안정된 가족구조가 갖추어 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따뜻하고 지지적인 부모자녀관계와 부모자신의 스트레스 등 문제 해결으로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청소년동반자의 상담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영향이 청소년동반자의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상담이 중요하다고 조사되기도 하였다(황순길 외, 2014).

이렇듯 부모상담의 필요성과 자녀의 심각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동반자 대상청소년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위기문제 해결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다고 말할 수 없다. 2014년 청소년동반자 대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보통이다’가 27.3% 였으며, 심지어 ‘관심없다’가 11%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나고 있어 위기청소년일수록 오히려 부모 관심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자들의 제언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부모협조 여부에 있어서는 ‘협조적이지만 시간내기가 힘들다’는 48.1%로 나타나 관심이 있더라도 부모의 생계유지 활동으로 인한 부모상담의 어려움이 있고, 적극적 협조성에 있어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황순길 외 2014). 즉, 이러한 부모의 낮은 관심은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 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동반자 대상청소년이 취약계층이 많은 것으로 보아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 등의 이유로 자녀문제 개입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도 실제적인 청소년 위기문제 해결에 제약이 될 소지가 높다.

이렇듯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상담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김광웅(2009)은 부모상담 실태조사를 통해 부모 자신의 심리문제, 비협조적인 태도와 반응, 상담자의 성인상담 지식이나 기술 부족, 상담자의 역전이, 상담시간 부족, 부모의 낮은 이해수준 및 통찰부족, 미혼 상담자 또는 양육경험 부재, 부모상담 공간 부족 등을 부모상담의 어려움으로 보고한 바 있다. 김광웅(2009)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상담에서 상담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부모의 정신병리나 비협조적인 태도다. 이러한 부모의 경우 일선 상담현장에서 부모상담을 진행할 시 상담 거부, 화를 내며 분노를 표출하거나 가급적 말을 하지 않고 감정을 숨기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분노를 표출하거나 저항적인 부모와 상담하는 것은 다른 유형의 부모를 상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상담자의 부모상담에서의 어려움에 관한 또 다른 연구를 살펴보면, 박자영(2009)은 아동상담에 있어서 부모상담의 어려움 관련 변인으로 첫째, 상담자와 관련한 전문성 부족, 역전이, 개인적 경험 부족을 제시하였고, 둘째, 부모특성으로써 부모의 부정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 상담자에 대한 신뢰부족, 부모의 심리적 문제를 제시하였으며 셋째, 환경적 요인으로 상담시간 부족 및 장소 확보의 어려움 등을 보고하였다. 특히 박자영(2009)의 연구에서 시사하는 점은

아동상담자의 양육경험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력이 비교적 짧은 초보상담자들은 상담자 자신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반면, 경력이 오래될수록 부모로 인해 경험하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청소년동반자의 경우도 자신의 자녀양육경험, 상담경력 등이 부모상담 과정상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홍수현과 최해림(2001) 또한 상담자의 경력 수준이 높을수록 상담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김수지와 정문자(2010)는 상담자의 특성과 상담관련 전문성,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연령, 결혼기간과 상담자의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상담자의 경력, 연령, 결혼기간이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의 효능감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에 기초하여 청소년동반자도 그러한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부모상담의 어려움의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장호(2005)는 상담경험과 숙련성이 상담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윤주와 김계현(2002)은 상담관련 전문적인 경력과 노하우가 축적 될수록 내담자의 핵심 문제를 심도 깊게 이해하게 되며, 내담자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수립하게 됨으로써 상담자 역전이 또는 부모 저항에 능숙하게 대응하게 된다고 하였다. 한편, Bernard와 Goodyear(2009)는 유능한 전문상담자로 성장하기 위한 훈련으로 전문적 교육을 받는 슈퍼비전에 대해 강조하였다. 상담자 자신 이외의 경력이 많은 또는 전문성을 가진 또 다른 전문가로부터의 부모상담간의 어려움에 대한 슈퍼비전은 통찰을 얻고 상담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청소년동반자의 경우 일반 상담과는 다른 특성도 나타나는데, 청소년 동반자 개입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첫째, 위기청소년의 문제는 개인 또는 가족 중심의 문제를 넘어선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동반자가 개입해야 하는 가출청소년의 경우 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다양한 지역사회내 보호체계와 연계해야 하는 등 개인, 가정, 지역사회의 복합적 지원과 연계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동반자의 청소년상담은 공

적서비스로 제공되는 상담서비스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동반자의 상담은 찾아오는 내담자를 상담하는 것이 아닌 내담자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심리상담에서 지향하는 개인내적 심리중심 개입에서 나아가 개인의 심리 및 환경적 요인에 복합적으로 개입하고 위기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서 부모와 청소년을 상담하는 적극적 상담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내담자가 상담실로 찾아오는 수동적 상황에서의 부모상담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있고 청소년동반자를 대상으로 한 부모상담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조사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동반자들은 부모상담의 중요성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황순길 외, 2014). 청소년동반자 특성을 고려할 때, 부모상담에서 겪는 어려움이 실제로 높을 것으로 예측되나, 이와 관련한 체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청소년동반자들이 부모상담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동반자의 부모상담 어려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청소년동반자의 특성에 맞는 부모상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동반자만의 부모상담 특성을 감안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선적으로 청소년동반자가 일선현장에서 부모상담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동반자들이 부모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실태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동반자 변인, 부모 변인, 환경 변인에 따른 청소년동반자의 부모상담의 어려움을 살펴본다.
2. 청소년동반자 특성에 따라 부모상담의 어려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방법

가.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활동 중인 1,044명의 청소년동반자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 중 연구 참여를 희망한 36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328명(89.6%), 남성이 38명(10.4%)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59명(43.4%), 30대가 96명(26.2%), 50대 이상이 78명(21.3%), 20대가 33명(9.0%) 순이었다. 결혼여부에 대한 응답에서는 기혼이 259명(70.6%), 미혼이 104명(28.3%)이었다.

<표 1> 청소년동반자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비율(%)	변인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38	10.4	최종	상담	195	53.1
	여	328	89.6		임상심리	4	1.1
연령	20대	33	9.0		사회복지학	57	15.5
	30대	96	26.2		학력	34	9.3
	40대	159	43.4		전공	19	5.2
	50대 이상	78	21.3		심리학	29	7.9
결혼	기혼	259	70.6		청소년학	27	7.4
	미혼	104	28.3	(중복 응답)	기타	111	18
여부	대학교 재학	4	1.1		청소년상담사	91	14
	대학	74	20.2		청소년지도사	190	30
학력	석사 재학 및 수료	99	27.0		사회복지사	40	6
	석사	163	44.4		상담심리사	59	9
사항	박사 이상	25	6.8		전문상담사	14	2
	1년 미만	55	15.0		임상심리사	11	2
상담	1년 이상 ~ 2년 미만	51	13.9		전문상담교사	26	4
	2년 이상	260	71		교사	70	11
경력					기타	19	3
					없음		

학력은 석사가 163명(44.4%)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석사재학 및 수료가 99명(27.0%), 대학교 졸업이 74명(20.2%), 박사 이상이 25명(6.8%), 대학교 재학이 4명(1.1%) 순이었다. 청소년동반자들의 개인별 상담경력을 살펴보면 2년 이상이 260명(70.8%), 1년 미만이 55명(15%), 1년 이상 2년 미만이 51명(13.9%) 순이었다.

나. 연구도구

본조사 설문지를 구성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설문지는 성별, 활동경력,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과 사례당 부모상담 평균 회기, 부모 상담에서의 어려움, 각 어려움별로 효과적인 부모상담 방안, 청소년동반자 상담의 어려움 6가지 개방형 질문에 대해 자유기술 하도록 구성하였다. 예비조사는 청소년동반자 117명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자유기술한 응답을 토대로 부모 상담에서의 어려운 점을 분류하여 범주화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부모상담의 어려움은 회기 수 제한, 자녀에 대한 이해부족, 부모상담 진행의 어려움, 열악한 가정환경, 방임하는 부모, 부모상담에 대한 개입 과다요구, 상담에 대한 큰 기대로 분류되었다.

본조사 설문지 제작을 위해 예비조사에서 도출된 부모상담의 어려움과 관련된 주제어와 박자영(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참고로 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지 구성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학 박사 4인, 아동청소년상담학과 교수 1인이 참여하였고, 학계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설문 문항을 검증하였다.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부모상담에서의 어려움 및 해결방법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총 10문항으로 청소년동반자의 성별, 연령, 결혼여부, 자녀나이, 학력, 전공, 상담경력(총 상담경력, 전일제청소년동반자 경력, 시간제청소년동반자 경력), 자격증, 활동지역 및 활동센터로 구성하였다. 부모상담의 어려움 및 개입방법은 예비조사의 개방형 질문을 통해 얻어진 결과와 정지영(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상담 요구도 조사’ 설문지를 기

초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정보 총 10문항, 부모상담의 중요성, 진행방식을 묻는 2문항과 부모상담의 어려움 및 개입방법을 묻는 54문항을 포함하여 총 6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상담의 어려움 및 개입방법은 크게 3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청소년동반자 변인 9문항, 부모 변인 42문항, 환경 변인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45문항은 어려움 경험 유무를 확인하는 문항과 어려움을 측정하는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도록 하였으며, 9문항은 어려움을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고,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청소년동반자가 사례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CYS-Net 종합정보망에 탑재하여 실시하였고, 종합정보망 활용이 어려운 일부 대상자들은 전자우편 및 팩스를 통해 설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Cronbach $\alpha = .96$ 이었다.

2. 자료분석

취합된 질문지 총 366부가 본 조사를 위한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자유반응의 경우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내용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여, 문항들을 공통범주들로 유목화하였다. 그리고 그 외의 문항들은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청소년동반자의 인구학적 통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7점 Likert 척도로 조사하였으나 어려움 정도의 경향성을 보다 명확히 분석하고 이해를 돋기 위해 높은 점수를 높은 경험으로, 낮은 점수를 낮은 경험으로 해석하고 이해를 돋기 위하여 7점 Likert 척도의 문항반응을 ‘어렵지 않다(5~7점)’, ‘보통이다(4점)’, ‘어렵다(1~3점)’ 3유형으로 유목화하여 구분하여 그 비율을 제시하였다.

셋째, 청소년동반자의 특성(결혼여부, 자녀유무, 연령대, 경력, 학력)에 따라 부모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비교하기 위해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부모상담의 중요성 및 진행방식

일반적인 청소년상담과 비교하여, 청소년동반자 상담에서 부모(주양육자) 상담의 중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더 중요하다’(39.5%), ‘훨씬 더 중요하다’(37.9%), ‘비슷하다’(19.6%) 순으로 나타났으며, ‘훨씬 덜 중요하다’와 ‘덜 중요하다’는 각각 1.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동반자들은 일반적인 청소년상담에 비해 청소년동반자 대상청소년에 대해 개입할 때 부모상담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일반 청소년상담에 비해 청소년동반자 상담에서의 부모상담 중요성과 주된 진행방식

중요성	빈도(명)	비율(%)	부모상담 주된 진행방식	빈도(명)	비율(%)
훨씬 덜 중요하다	4	1.1	가급적 청소년 상담 때 회기마다 부모(주양육자) 상담을 병행	64	17.4
덜 중요하다	4	1.1	청소년 상담을 몇 회기 진행한 후, 부모(주양육자) 상담을 따로 진행	207	56.4
비슷하다	72	19.6	상담 초기와 종결 시점에만 부모(주양육자) 상담을 진행	70	19.1
더 중요하다	145	39.5	부모(주양육자) 상담은 거의 진행하지 않음	23	6.3
훨씬 더 중요하다	139	37.9	결측치	2	0.5
결측치	2	0.5	합계	366	100
합계	366	100			

청소년동반자들의 부모상담 진행방식을 살펴보면, ‘청소년 상담을 몇 회기 진행한 후, 부모상담을 따로 진행’(56.4%), ‘상담 초기와 종결 시점에만 상담’(19.1%), ‘가급적 청소년 상담 매회기마다 부모상담 병행’(17.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상담은 거의 진행하지 않음’은 6.3%로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 동반자들은 대체로 부모상담을 별도 회기로 운영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2.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가. 청소년동반자 변인으로 인한 부모상담의 어려움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중 청소년동반자 변인을 분석한 결과, 개입기술에서 평균 35.4%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개입유능감에서는 38.4%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표 3> 부모상담의 주요 어려움 (청소년동반자 변인)

구분	문항	어렵지 않다 (%)	보통 이다 (%)	어렵다 (%)
개입 기술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 장면에서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다.	27.5	31.5	41.0
	부모의 갑작스런 질문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	43.9	32.8	23.2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 중 부모에게 역전이가 일어난다.	33.7	25.8	40.4
	다문화 가정 부모와 상담한다.	33.3	29.7	36.9
	평균	34.6	30.0	35.4
개입 유능감	청소년동반자가 부모 앞에서 상담자로서 통찰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29.8	31.1	39.1
	상담자로서 권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34.6	29.6	35.7
	청소년동반자로서 상담경험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26.6	26.0	47.4
	청소년동반자와 부모의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	35.7	32.1	32.1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 중 부모의 어려움에 압도당한다.	36.1	26.0	37.9
평균		32.6	29.0	38.4

문항별 상세한 반응 결과를 보면 개입기술에서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 장면에서 비슷한 말을 반복' 41%, '역전이가 일어난다' 40.4%를 보여, 청소년동반자에게 부모 개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개입유능감에서는 '상담경험 부족' 47.4%, '통찰력 부족' 39.1%, '부모에게 압도당한다' 37.9%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동반자가 청소년 상담에는 경험이 있다하더라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경험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부모변인으로 인한 부모상담의 어려움

부모변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개인적 문제'(58.6%), '의존성' (48.9%), '상담을 주도하려는 경향'(47.7%), '통찰력 부족'(47.2%), '부모 문제에 대한 개입 요구'(44.5%), '부정적 비협조적 태도'(43.6%), '청소년동반자 사업 이해 부족'(42.5%)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청소년동반자가 비교적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 영역은 '상담 및 상담자에 대한 신뢰부족'(38.4%), '청소년동반자 사업 이해부족'(32.0%), '부모 문제에 대한 개입 요구'(31.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문항별 상세한 반응 결과를 보면, 청소년동반자는 '부모가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전체 응답자의 73.5%가 어렵다고 응답함으로써 부모의 심리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서 자녀의 문제보다 생계를 우선으로 생각함'(65.0%),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음'(63.3%), '부모에게 개인 상담을 권유해도 받지 않음'(60.7%), '부모가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60.5%)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지각하고 있었다. 반면에 '부모가 청소년동반자 개인 사생활에 대해 물어봄'(47.6%), '반말을 함'(46.5%), '청소년 동반자가 양육문제에 대해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45.7%), '부모가 센터에만 알리고 상담을 종결'(45.5%), '부모가 청소년동반자 말을 무시'(44.9%),

'청소년동반자를 무시하는 비언어적 태도'(44.3%)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덜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부모상담의 주요 어려움 (부모 변인)

구분	문항	어렵지 않다 (%)	보통 이다 (%)	어렵다 (%)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서 자녀의 문제보다 생계를 우선으로 생각한다.	12.9	22.1	65.0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서 매우 권위적이다.	31.4	34.9	33.7
	부모가 상담시간을 자주 변경한다.	35.1	33.7	31.2
	부모가 센터에만 알리고 상담을 종결한다.	45.5	26.0	28.5
부정적 비협조 적태도	부모가 자녀 혹은 청소년동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 상담의 종결을 요구한다.	31.3	21.4	47.3
	부모가 상담시간을 미루는 등 상담에 불성실하게 임한다.	31.5	26.1	42.4
	부모에게 개인 상담을 권유해도 받지 않는다.	14.3	25.0	60.7
	부모가 청소년동반자 개인 사생활에 대해 물어본다.	47.6	33.9	18.5
	부모가 다른 사람의 권유로 상담에 참여하여 상담동기가 낮다.	24.4	29.9	45.8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15.9	20.8	63.3
	평균	29.0	27.4	43.6
	부모가 상담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다.	25.6	31.1	43.3
	청소년동반자의 전문성에 대해 의심한다.	38.1	30.0	31.9
상담 및 상담자 에 대한 신뢰 부족	청소년동반자가 양육문제에 대해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45.7	28.9	25.4
	부모가 청소년동반자에게 반말을 한다.	46.5	30.5	23.0
	부모가 청소년동반자의 말을 무시한다.	44.9	27.3	27.8
	부모가 청소년동반자를 무시하는 비언어적인 태도를 보인다.	44.3	30.0	25.7
	부모가 청소년동반자에게 화를 낸다.	36.1	27.9	36.1
	상담중, 성과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만을 호소한다.	25.6	34.4	39.9
	평균	38.4	30.0	31.6
청소년 동반자 사업 이해부족	부모가 청소년동반자를 도우미로 인식하는 등 청소년동반자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32.8	23.2	43.9
	부모가 청소년동반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담복지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요구한다.	31.2	27.7	41.1
	평균	32.0	25.5	42.5

구분	문항	어렵지 않다 (%)	보통 이다 (%)	어렵다 (%)
통찰력 부족	부모가 상담의 모든 성과를 청소년동반자의 책임으로 돌린다.	29.9	24.0	46.1
	부모가 상담 중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청소년동반자의 잘못으로 돌린다.	30.5	27.2	42.3
	부모가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옳다고 우긴다.	30.3	24.3	45.3
	부모 자신의 문제를 합리화한다.	19.7	23.1	57.1
	부모 자신의 양육태도에 지나친 죄책감을 갖는다.	34.9	32.5	32.5
	부모가 피해의식이 높아서 청소년동반자의 행동을 오해한다.	28.3	29.2	42.5
	부모가 청소년동반자가 제시하는 의견(양육태도, 의사 소통 방법 등)을 거부하고 자신의 잘못된(일방적인) 양육태도를 고집한다.	15.7	24.0	60.2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만 무조건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다.	22.5	25.6	51.9
	평균	26.5	26.2	47.2
	부모가 작은 일도 자주 질문하며 청소년동반자에게 많이 의존한다.	25.4	29.2	45.4
의존성	부모가 본인 대신 청소년동반자에게 자녀를 전적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요구한다.	24.7	23.0	52.4
	평균	25.1	26.1	48.9
	부모	부모가 자녀문제보다 부모 자신의 문제를 도움 받고 싶어한다.	35.8	24.0
문제에 대한 개입요구	부모가 일탈중독, 이혼, 부부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26.3	25.1	48.6
	평균	31.1	24.6	44.5
	부모의 생계, 직업적 사유 등으로 부모를 만나기 어렵다.	16.3	25.0	58.8
	부모가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16.8	22.7	60.5
	부모의 지적수준이 낮다고 판단된다.	25.8	23.6	50.6
부모의 개인적 문제	부모의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다.	24.7	25.8	49.4
	부모가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12.6	13.9	73.5
	평균	19.2	22.2	58.6
	부모가 자녀문제보다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자 한다.	24.4	24.0	51.6
	자녀와 비밀스럽게 다룬 상담내용을 부모가 듣고 싶어한다.	32.9	26.1	41.0
상담을 주도 하려는 경향	부모가 청소년동반자를 통해 자녀를 통제하고자 한다.	23.3	21.3	55.4
	부모가 쏟아내듯이 자기 이야기만 과도하게 한다 (말을 길게 하는 부모의 말을 끊지 못한다)	33.1	23.7	43.3
	자녀와 부모가 청소년의 문제 및 상황에 대해 다르게 이야기한다.	23.8	29.1	47.1
	평균	27.5	24.8	47.7

다. 환경변인으로 인한 부모상담의 어려움

환경변인을 보면, 회기의 제한에 대한 어려움이 58.1%로 가장 높았다. 청소년동반자의 개입기간은 3개월이며, 1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소년동반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제공의 제한이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부모상담 거부가 41.9%로 높았으나 어렵지 않다는 반응도 30.6%로 나타나고 있고, 청소년동반자 안전문제 역시 어렵다는 반응이 37.4%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부모상담의 주요 어려움 (환경 변인)

구분	문항	어렵지 않다 (%)	보통 이다 (%)	어렵다 (%)
청소년의 부모상담 거부	청소년이 부모상담을 거부한다.	30.6	27.5	41.9
회기의 제한	회기가 제한적이므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지 못한다.	16.5	25.4	58.1
청소년동반자 안전문제	부모를 만날 때 청소년동반자 (본인)의 안전에 대한 염려가 생긴다.	29.9	32.7	37.4

3. 청소년동반자의 연령, 경력, 결혼여부, 자녀유무, 전공에 따른 부모상담의 어려움

가. 청소년동반자의 연령

청소년동반자 연령에 따라 부모상담에서 어려움을 지각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54개 문항 중 25개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청소년동반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반응이 일관되게 나타났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25개 문항에서 전체적으로 어려움 인식점수는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어려움을 덜 경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동반자가 부모로서의 출산과 양육경험,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대처 등의 경험 유무가 부모상담 어려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응한 청소년동반자들의 연령별 비율을 보면 20대 9%, 30대 26.2%, 40대 43.4%, 50대 이상 21.3%로 40대가 가장 많았고, 20대와 30대는 4-50대에 비해 부모상담에서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청소년동반자의 연령에 따른 부모상담의 어려움 문항 비교

	문항	20대 ^a (N=33)	30대 ^b (N=96)	40대 ^c (N=13)	50대 이상 ^d (N=78)	F	사후 분석 (Scheffé)
		4.04 (1.23)	3.97 (1.52)	3.47 (1.54)	3.33 (1.41)		
개입 기술	부모의 갑작스런 질문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	4.04 (1.23)	3.97 (1.52)	3.47 (1.54)	3.33 (1.41)	3.177*	
	청소년동반자가 부모 앞에서 상담자로서 통찰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4.83 (1.62)	4.46 (1.45)	3.98 (1.54)	3.62 (1.38)	6.046***	a>d
개입 유능감	상담자로서 권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4.90 (1.54)	4.50 (1.44)	3.69 (1.65)	3.44 (1.47)	9.740***	ab>c,d
	청소년동반자로서 상담경험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4.76 (1.82)	4.76 (1.38)	4.29 (1.58)	3.74 (1.58)	5.945***	a,b>d
	청소년동반자와 부모의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	3.96 (1.62)	4.36 (1.52)	3.68 (1.51)	3.55 (1.50)	4.062**	b>c,d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 중 부모의 어려움에 암도당한다.	4.64 (1.42)	4.57 (1.46)	3.84 (1.56)	3.54 (1.43)	7.435***	a>d
부정적 비협조	부모에게 개인 상담을 권유해도 받지 않는다.	5.33 (1.59)	5.13 (1.43)	4.69 (1.45)	4.44 (1.46)	3.772*	
	부모가 청소년동반자 개인 사생활에 대해 물어본다.	3.77 (1.74)	3.66 (1.48)	3.44 (1.60)	2.93 (1.15)	2.916*	
적태도	부모가 다른 사람의 권유로 상담에 참여하여 상담동기가 낫다.	4.73 (1.32)	4.66 (1.18)	4.09 (1.38)	4.04 (1.37)	5.845***	b>c,d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4.76 (1.20)	4.93 (1.09)	4.53 (1.29)	4.45 (1.39)	2.753*	
상담/ 상담자	청소년동반자의 전문성에 대해 의심한다.	4.50 (1.37)	4.10 (1.38)	3.75 (1.53)	3.49 (1.46)	3.773*	a>d
	청소년동반자가 양육문제에 대해 신뢰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부족 가지고 있다.	4.92 (1.59)	4.19 (1.43)	3.31 (1.37)	2.87 (1.27)	18.333***	ab>c,d

문항	20대 ^a (N=33)	30대 ^b (N=96)	40대 ^c (N=133)	50대 이상 ^d (N=78)	F	사후 분석 (Scheffé)
	20대 ^a (N=33)	30대 ^b (N=96)	40대 ^c (N=133)	50대 이상 ^d (N=78)		
청소년 동반자 사업이 해부족	부모가 청소년동반자를 도우미로 인식하는 등 청소년동반자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4.89 (1.66)	4.69 (1.65)	4.00 (1.58)	3.68 (1.59)	6.43*** a>d
통찰력 부족	부모가 상담의 모든 성과를 청소년동반자의 책임으로 돌린다. 부모가 상담 중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청소년동반자의 잘못으로 돌린다. 부모 자신의 문제를 합리화한다.	4.88 (1.66)	4.60 (1.65)	4.04 (1.70)	3.70 (1.53)	4.75*** a,b>d 3.523* a>d 5.682*** a,b>d
의존성	부모가 청소년동반자가 제시하는 의견(양육태도, 의사소통 방법 등)을 거부하고 자신의 잘못된(일방적인) 양육태도를 고집한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다. 부모가 작은 일도 자주 질문하며 청소년동반자에게 많이 의존한다.	5.30 (1.18)	4.98 (1.24)	4.47 (1.33)	4.66 (1.58)	5.031** a,b>c 11.46*** abc>d
개인적 문제	부모가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5.71 (1.35)	5.44 (1.36)	5.09 (1.35)	4.68 (1.50)	5.311** a,b>d
상담을 주도 하려는 경향	부모가 자녀문제보다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자 한다. 부모가 청소년동반자를 통해 자녀를 통제하고자 한다. 부모가 쏟아내듯이 자기 이야기만 과도하게 한다.(말을 길게 하는 부모의 말을 끊지 못한다.)	5.04 (1.50)	4.53 (1.27)	4.43 (1.45)	4.05 (1.49)	3.308* a>d 8.690*** a>c,d 10.855*** ab>c,d
	자녀와 부모가 문제 및 상황에 대해 다르게 이야기한다.	4.85 (1.39)	4.66 (1.10)	4.17 (1.23)	4.08 (1.40)	6.008*** ab>c,d

*p<.05, **p<.01, ***p<.001

나. 청소년동반자의 경력

청소년동반자 경력에 따라 부모상담에서 어려움을 지각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54개 문항 중 16개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의 경력자가 ‘1년 미만’ 또는 ‘2년 이상’의 경력자보다 더 어려움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담 및 상담자에 대한 신뢰부족 범주나 통찰력 부족 범주에서 그런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청소년동반자들에 비해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청소년동반자들이 사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더 깊게 문제를 탐색하고, 아울러 개입방법에 대한 고민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게 되면 이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7> 청소년동반자의 경력에 따른 부모상담의 어려움 문항 비교

	문항	1년미만 ^a (N=55)	1년이상 ^b (N=51)	2년이상 ^c (N=20)	F	사후분석 (Scheffé)
개입 기술	청소년동반자가(본인이) 부모상담 장면에서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다.	4.94 (1.33)	4.48 (1.20)	4.02 (1.37)	7.952***	a>c
	부모의 갑작스런 질문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	4.09 (1.54)	4.24 (1.42)	3.44 (1.47)	6.597**	b>c
개입 유능감	부모 앞에서 상담자로서 통찰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4.67 (1.33)	4.71 (1.42)	3.90 (1.55)	7.983***	ab>c
	상담자로서 권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4.56 (1.43)	4.61 (1.52)	3.71 (1.63)	8.925***	a,b>c
비협조	청소년동반자와 부모의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	3.56 (1.52)	4.46 (1.33)	3.78 (1.57)	4.142*	b>a,c
	청소년동반자로서 상담 경험에 부족하다고 느낀다.	5.04 (1.33)	5.11 (1.43)	4.01 (1.58)	15.522***	ab>c
적태도	부모가 상담자 개인 사생활에 대해 물어본다.	3.50 (1.75)	4.00 (1.44)	3.27 (1.46)	3.453*	b>c

	문항	1년미만 ^a (N=55)	1년이상 ^b (N=51)	2년이상 ^c (N=200)	F	사후분석 (Scheffe)
상담 및 상담자 에 대한 신뢰 부족	부모가 상담의 모든 성과를 청소년동반자의 책임으로 돌린다.	4.33 (1.37)	4.98 (1.19)	4.09 (1.57)	5.906**	b>c
	청소년동반자의 전문성에 대해 의심한다.	4.19 (1.47)	4.38 (1.13)	3.70 (1.53)	4.467*	b>c
통찰력 부족	청소년동반자가 자녀문제에 대해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3.85 (1.77)	4.42 (1.11)	3.42 (1.51)	7.229**	b>c
	상담의 모든 성과를 청소년동반자의 책임으로 돌린다.	4.42 (1.71)	4.92 (1.27)	4.01 (1.71)	4.842**	b>c
상담 주도 경향	부모 자신의 문제를 합리화한다.	5.15 (1.03)	4.98 (1.42)	4.49 (1.50)	4.888**	a>c
	부모가 청소년동반자가 제시하는 의견(양육 태도, 의사소통 방법등)을 거부하고 자신의 잘못된 (일방적인) 양육태도를 고집한다.	4.78 (1.37)	5.18 (1.31)	4.61 (1.38)	3.654**	b>c
부모의 개인적 문제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만 무조건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다.	4.51 (1.22)	4.82 (1.38)	4.32 (1.26)	3.377*	b>c
	부모가 청소년동반자를 통해 청소년을 통제하고자 한다.	5.03 (1.21)	5.14 (1.23)	4.36 (1.59)	6.878**	a,b>c
	부모가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5.69 (1.05)	5.34 (1.36)	5.00 (1.47)	4.821**	a>c

*p<.05, **p<.01, ***p<.001

다. 청소년동반자의 결혼여부

청소년동반자의 결혼여부에 따라 부모상담에서 어려움을 지각하는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54개 문항 중 21개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21개 문항은 대체로 ‘개입기술’, ‘개입유능감’, ‘부정적 비협조적 태도’, ‘상담 및 상담자에 대한 신뢰부족’, ‘청소년동반자 사업 이해 부족’, ‘통찰력 부족’, ‘의존성’, ‘상담을 주도하려는 경향’ 등의 범주에 속해 있었는데, 21개 문항에서 모두 일관되게 미혼이 더 어려움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청소년동반자의 결혼여부에 따른 부모상담의 어려움 문항 비교

	문항	기준 M(SD)	미준 M(SD)	t
개입 기술	부모의 갑작스런 질문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	3.43 (1.462)	4.09 (1.500)	-3.460***
	청소년동반자가 부모 앞에서 상담자로서 통찰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3.91 (1.450)	4.63 (1.602)	-3.719***
	상담자로서 권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3.76 (1.562)	4.50 (1.665)	-3.531***
개입 유능감	청소년동반자로서 상담경험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4.21 (1.570)	4.66 (1.630)	-2.201*
	청소년동반자와 부모의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	3.73 (1.516)	4.16 (1.596)	-2.096*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 중 부모의 어려움에 압도당한다.	3.85 (1.554)	4.48 (1.468)	-3.079**
부정적	부모에게 개인 상담을 권유해도 받지 않는다.	4.68 (1.460)	5.07 (1.523)	-1.993*
비협조 적	부모가 청소년동반자 개인 사생활에 대해 물어본다.	3.27 (1.475)	3.75 (1.560)	-2.179*
태도	부모가 다른 사람의 권유로 상담에 참여하여 상담동기가 낫다.	4.13 (1.373)	4.66 (1.251)	-3.442***
상담/ 상담자 에 대한 신뢰	청소년동반자가 양육문제에 대해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3.28 (1.391)	4.31 (1.580)	-5.282***
부족	상담 중, 성과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만을 호소한다.	4.08 (1.300)	4.40 (1.333)	-2.113*
동반자 사업이 해부족	부모가 청소년동반자를 도우미로 인식하는 등 청소년동반자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3.98 (1.617)	4.60 (1.673)	-2.844**
	부모가 상담의 모든 성과를 청소년동반자의 책임으로 돌린다.	3.96 (1.675)	4.71 (1.602)	-3.339***
통찰력 부족	부모가 상담 중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청소년동반자의 잘못으로 돌린다.	4.00 (1.643)	4.64 (1.798)	-2.705**
	부모 자신의 문제를 합리화한다.	4.53 (1.454)	4.91 (1.428)	-2.010*

문항	기혼 M(SD)	미혼 M(SD)	<i>t</i>
부모가 청소년동반자가 제시하는 의견을 거부하고 자신의 잘못된 양육태도를 고집한다.	4.62 (1.440)	4.97 (1.218)	-2.375*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다.	4.31 (1.293)	4.64 (1.214)	-2.226*
부모가 작은 일도 자주 질문하며 청소년동반자에게 많이 의존한다.	4.07 (1.526)	4.76 (1.377)	-3.665***
부모가 본인 대신 청소년동반자에게 자녀를 전적으로 변화시켜주기를 요구한다.	4.28 (1.410)	4.66 (1.370)	-2.358*
부모가 청소년동반자를 통해 자녀를 통제하고자 한다.	4.39 (1.556)	4.94 (1.393)	-2.883**
부모가 쓸아내듯이 자기 이야기만 과도하게 한다.	3.96 (1.393)	4.56 (1.493)	-3.584***

*p<.05, **p<.01, ***p<.001

라. 청소년동반자의 자녀유무

청소년동반자의 자녀 유무에 따라 부모상담에서 어려움을 지각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54개 문항 중 23개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23개 문항은 대체로 ‘개입기술’, ‘개입유능감’, ‘부정적 비협조적 태도’, ‘상담 및 상담자에 대한 신뢰부족’, ‘청소년동반자 사업 이해 부족’, ‘통찰력 부족’, ‘의존성’, ‘개인적 문제’, ‘상담을 주도하려는 경향’, ‘회기의 제한’ 등의 범주에 속해 있었는데, 23개 문항에서 모두 일관되게 자녀가 없는 경우에 더 어려움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동반자의 결혼여부와도 매우 비슷하다. 다만 결혼여부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개인적 문제’, ‘회기의 제한’ 범주가 포함되었다. 이는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부모상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표 9> 청소년동반자의 자녀유무에 따른 부모상담의 어려움 문항 비교

	문항	M(SD)	자녀	자녀	<i>t</i>
			있음	없음	
개입 기술	청소년동반자가(본인) 부모상담 장면에서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다.	4.08 (1.35)	4.48 (1.44)		-2.173*
	부모의 갑작스런 질문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	3.49 (1.48)	3.98 (1.53)		-2.410*
개입 유능감	부모(주양육자)앞에서 상담자로서 통찰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3.95 (1.49)	4.54 (1.57)		-3.016**
	상담자로서 권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3.78 (1.59)	4.44 (1.65)		-3.119**
부정적 비협조적 태도	청소년동반자와 부모의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	3.73 (1.52)	4.18 (1.58)		-2.195*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 중 부모의 어려움에 압도당한다.	3.86 (1.54)	4.45 (1.52)		-2.897*
상담/상 담자에 대한 신뢰부족	부모에게 개인 상담을 권유해도 받지 않는다.	4.68 (1.46)	5.08 (1.54)		-1.984*
	부모가 청소년동반자 개인 사생활에 대해 물어본다.	3.23 (1.48)	3.81 (1.54)		-2.688**
청소년 동반자 사업 이해 부족	부모가 다른 사람의 권유로 상담에 참여하여 상담동기가 낫다.	4.12 (1.36)	4.70 (1.29)		-3.633***
	청소년동반자가 양육문제에 대해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3.33 (1.45)	4.22 (1.53)		-4.455**
통찰력 부족	상담 중, 성과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만을 호소한다.	4.08 (1.30)	4.40 (1.34)		-2.060*
	부모가 청소년동반자를 도우미로 인식하는 등 청소년동반자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3.98 (1.62)	4.60 (1.67)		-2.844**
부족	부모가 상담의 모든 성과를 청소년동반자의 책임으로 돌린다.	3.99 (1.68)	4.71 (1.58)		-3.147**
	부모가 상담 중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청소년동반자의 잘못으로 돌린다.	4.00 (1.64)	4.67 (1.79)		-2.825**

	문항	자녀 있음 M(SD)	자녀 없음 M(SD)	<i>t</i>
의존성	부모가 청소년동반자가 제시하는 의견(양육태도, 의사소통 방법 등)을 거부하고 자신의 잘못된(일방적인) 양육태도를 고집한다.	4.59 (1.41)	5.04 (1.28)	-2.801**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다.	4.30 (1.25)	4.66 (1.30)	-2.382*
	부모가 작은 일도 자주 질문하며 청소년동반자에게 많이 의존한다.	4.12 (1.53)	4.67 (1.43)	-2.865**
	부모가 본인 대신 청소년동반자에게 자녀를 전적으로 변화시켜주기를 요구한다.	4.27 (1.35)	4.67 (1.51)	-2.407*
	개인적 문제 부모의 생계, 직업적, 심리적 사유 등으로 부모를 만나기 어렵다.	4.63 (1.36)	5.03 (1.39)	-2.364**
상담을 주도하려는 경험	부모가 청소년동반자를 통해 자녀를 통제하고자 한다.	4.35 (1.52)	4.98 (1.49)	-3.215**
	부모가 쏟아내듯이 자기 이야기만 과도하게 한다.(말을 길게 하는 부모의 말을 끊지 못한다.)	3.94 (1.40)	4.63 (1.48)	-4.03***
	자녀와 부모가 문제 및 상황에 대해 다르게 이야기한다.	4.22 (1.26)	4.61 (1.32)	-2.551*
	회기의 제한 회기가 제한적이므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지 못한다.	4.59 (1.52)	5.17 (1.54)	-2.890**

*p<.05, **p<.01, ***p<.001

마. 청소년동반자의 학력 및 전공

청소년동반자 학력에 따른 부모상담의 어려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동반자의 전공에 따라서도 부모상담에서 어려움을 지각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54개 문항 중 2개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사후분석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동반자들이 부모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청소년 동반자 변인, 부모 변인, 환경 변인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동반자들은 부모상담을 진행하면서 ‘비슷한 말을 반복’하거나 (41%), ‘역전이가 일어난다’(40.4%)고 보고하고 있다. 박자영(2009)의 연구에서 도 상담자의 역전이를 부모상담의 어려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자살, 가출, 범죄 등 위기청소년 대상 전문상담자로서 청소년동반자의 경우, 고위기 상담의 비중이 높고 내담자 가정의 경우 가정해체, 가정폭력 등 가정 내 여건이 일반 상담보다 오히려 어려운 상담과정이 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상담자의 소진 및 역전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부모에게 개입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상담경험 부족’(47.4%), ‘부모에게 압도당한다’(37.9%)라고 보고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부모상담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윤주와 김계현(2002) 역시 부모상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담자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Bernard와 Goodyear(2009)도 유능한 전문상담자로 성장하기 위한 훈련으로 전문적 교육을 받는 수퍼비전에 대해 강조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동반자의 부모상담 어려움에 대해서는 청소년동반자의 역량 강화 및 유능감 향상을 위하여 부모상담 관련 내용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가 가진 문제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부모가 가진 심리적 문제’에 부딪쳤을 때 전체 응답자의 73.5%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김광웅(2009)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심리적 문제를 부모상담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고한 바 있다. McGuire, & McGuire(2008)는 상담 시 부모 감정반영과 안정감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녀의 문제에 대한 감정반영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심리적 문제해소에 대한 감정반영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부모가 가진 심리적 문제'의 경우 청소년동반자 사업의 특성에 기인하여 부모 상담을 어렵게 하는데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을 효율적으로 상담하기 위하여 부모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 개인의 문제가 노출되고 이를 다루어줄 것을 기대 받을 때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이유는 먼저, 청소년동반자 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으로 부모 개인의 외상이나 부부문제 등을 청소년동반자가 다룰 수 없다는 사업원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부모의 개인적 문제가 노출되어 다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외부 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인을 상담해주는 상담기관이 매우 적을 뿐더러 또 유료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부모에게 쉽게 제안하기 어렵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문제보다 생계를 우선으로 생각'(65%)하는 데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 여겨진다. 부모의 심리적 문제는 '상담자에 대한 의존'(48.9%), '상담을 주도하려는 경향'(47.7%), '(자녀 문제에 대한)통찰력 부족'(47.2%) 등과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청소년동반자 대상청소년의 부모는 자녀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자신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자녀문제에 대해 제3자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경우 생계를 이유로 상담자가 알아서 자신의 자녀를 고쳐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의존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동반자의 연령이 부모상담에서 겪는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동반자의 경우 20대~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 참여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20대일수록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동반자간 연령대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부모상담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개입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은 청소년동반자 상담에 있어서의 독특한 특성이다. 연령대에서 부모상담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향은 청소년동반자의 결혼여부와 자녀 유무와도 관련이 있었다. 부모를 상담하는데 있어서 미혼이 기혼보다 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청소년 자녀 양육 경험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박자영(2009)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따라서 청소년동반자들의 연령 대 및 결혼여부와 자녀 양육 경험 유무를 고려하여 청소년동반자팀을 구성할 때 부모상담에 대한 컨설팅 및 멘토링이 이루어지도록 구성원을 안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넷째, 청소년동반자 경력이 부모상담에서의 어려움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장호(2005)는 상담경험과 숙련성이 상담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분석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초보(1년 미만)와 2년 이상 경력자가 1~2년 경력자보다 어려움을 덜 겪는다는 것이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년 이상 2년 미만의 청소년동반자들이 사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개입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문제를 탐색하게 되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동반자의 특성에 따른 부모상담의 실태를 조사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상담 어려움에 대한 실태조사로 이를 활용한 결과는 제시되지 못하였다. 청소년동반자의 부모상담에 대한 연구는 2차년도 계획 하에 수행되고 있다. 1차년도 연구는 ‘청소년동반자들이 부모상담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실태조사’이고, 2차년도 연구는 ‘청소년동반자들의 부모상담개입 프로토콜 개발연구’다. 개입 프로토콜 개발에 이어지기까지는 일정 시간 소요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추가로 면접조사 등이 실시되면 이 연구에서 분석된 내용에 수정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실태조사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절차와 이에 따른 효과성 검증이 요구된다.

둘째, 청소년동반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매우 비율이 높다. 이는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동반자 뿐 아니라 전체 청소년동반자 비율에서도 여성이 90%에 가깝다. 따라서 이러한 성비는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 이 연구 결과는 정부의 찾아가는 상담 정책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특히 청소년동반

자들이 겪는 부모상담에서의 어려움의 내용들은 향후 법과 지침 개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동반자 부모상담 방향, 청소년동반자 직무연수 등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동반자들이 겪는 부모상담에서의 어려움의 내용들은 부모를 상대해야 하는 초보상담자나 학교 교사 연수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고스케 유코 (2012). **온둔형 외톨이 사례연구: 한국과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정자 (2005). 부모의 감독 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17.
- 권현용 (2013). 청소년 동반자의 상담사례를 통한 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질적 분석. **인문학논총**, 33, 151-181.
- 기채영 (2006). 놀이치료에서 부모상담의 치료성과요인 및 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놀이치료학회지**, 9(2), 41-58.
- 김광웅 (2009). 놀이치료에서의 부모상담 실태조사 연구. **놀이치료연구**, 12(1), 47-63.
- 김광웅, 김화란 (2006). **놀이로 이해하는 우리 아이 처음만나는 놀이치료.**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 김동일, 최수미 (2008). CYS-Net 상담서비스 이용이 위기 청소년의 심리내적 및 환경적 위기수준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9(3), 129-146.
- 김송은 (2011).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평가.**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지, 정문자 (2010) 가족상담자의 상담관련 전문성이 부부관계와 가족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 효과.

- 상담학연구, 11(3), pp.1289-1304
- 김은이, 오경자 (2014). 가족 내 위험요인이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5(2), 79-113.
- 김현수, 김현실 (2000). 청소년 비행행동 측정도구 개발.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11(1), 79-90.
- 노성덕, 이대형 (2011). *청소년동반자 활동 매뉴얼(개정판)*. 한국청소년상담원.
- 박소영 (2014). 개인, 가족, 학교요인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음미, & 최희철. (2015). 청소년동반자 상담활동이 청소년의 애착증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3(4), 5-10.
- 박자영 (2009). 아동상담자가 부모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한샘, 고은영 (2009). 상담일반: 청소년동반자 활동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10(4), 1971-1994.
- 서선진, 송원영 (2012). 가출청소년의 가출 결정 과정에 나타난 부모-자녀관계 유형 분류. *청소년상담연구*, 20(1), 141-157.
- 송원영, 송미경, 노성덕, 이대형, 김호정, 박선경, 김현진 (2011). 청소년동반자 지원서비스가 위기청소년의 문제해결에 미치는 효과, 여성가족부 신속재, 한정원 (2000). 아동 중심 놀이치료의 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3(1), 49-57.
- 신현정 (2008). 아동상담에서의 어머니 변화 : 치료놀이(Theraplay)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2), 65-97.
- 여성가족부 (2016). *2016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 오경자, 김은이, 도례미, 어유경 (2005). 빈곤 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53-71.
- 오경자, 이기학, 지승희 (2005).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청소년 위원회

- 오경자, 배주미, 양재원 (2009).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중체계치료적 접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개입 효과성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7(1).
- 유미숙 (1997). *놀이치료 이론과 실제*. 서울: 상조사.
- 이상균 (2009). 청소년기 경비행행동과 부모양육행동간의 병렬적 잠재성장모형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27, 243-266.
- 이윤주, 김계현 (2002).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수행능력과 상담 경력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257-272.
- 이웅택, 이은경 (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20(1), 55-70.
- 이장호 (2005). *상담심리학*. 서울: 박영사.
- 이혜자 (2008). 아동 미술치료에서의 부모상담 현황 및 부모상담에 대한 치료사와 부모의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8(2), 17-38.
- 임고은, 이동귀 (2014). 성폭력 유경험 어머니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이 성폭력 피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5(3), 1009-1034.
- 장정연 (1998). *청소년 약물남용과 가족변인과의 관계연구 : 약물남용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비교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혜리 (2010). 아동·청소년 상담에서의 부모상담의 유형과 효과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8(4), 3-20.
- 정재우 (2013).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및 가출경험 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지영 (2010). *놀이치료자 교육과정에서 부모상담 교육실태 및 요구도 조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선영, 김광웅 (2005). 놀이치료에서의 부모상담 현황 및 부모상담에 대한 상담자, 부모의 인식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8(1), 49-60.
- 최명선, 김광웅 (2005). 아동상담에서 부모와 치료자간 치료관계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26(3), 111-125.
- 최선미(2003). *놀이치료 내담아동 어머니의 대상관계 수준과 치료적 동맹*.

-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7). *2007 청소년동반자 3차 직무연수 자료집 1. 한국 청소년상담원*.
- 한상임 (2010). *가족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경기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상철 (2008). *청소년학*. 서울: 학지사.
- 황순길, 손재환, 전연진, 송미경, 김태성, 명재신, 양민정, 허미경, 김남희 (2014).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청소년유형에 따른 상담요구 및 성공적 상담을 위한 요인 도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홍나미. (2012). 연구논문: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글로벌사회복지연구*, 2(2), 7-30
- 홍수현, 최해림. (2001). 상담초기단계에서 상담자의 자기효능감 및 상태불안이 상담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31-49.
- Arnold, L. E. (1978). *Helping parents help their children*. NY:Brunner/Mazel.
- Bernard, J. M., & Goodyear, R. K. (2009). *Fundamentals of clinical supervision*(4th ed.). Boston: Pearson Education.
- Ricky Greenwald (2002). *Child Trauma Handbook*, 마음을 다친 아동청소년을 위한 핸드북. 정성훈, 정문선 공역. 서울: 학지사
- James, O. (1997). *Play therapy: A comprehensive guide*. Northvale, NJ: Jason Aronson.
- Knell, S. (1993). *Cognitive-behavioral play therapy*. Northvale, N.J.: Jason Aronson
- Kottman, T. (1995). *Partners in play: An Adlerian approach to play therapy*.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McGuire, D. K. & McGuire, D. E. (2008). 놀이치료에서의 부모상담. (김광웅, 강은주, 진화숙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32 노성덕 · 정재우 · 김태성 · 김경희 · 이미현 · 배희분

Schaefer, Charles E. (2006). *놀이치료의 기초*. 김은정(역), 서울: 시그마프
레스

원고접수일 : 2016. 09. 10.
수정원고접수일 : 2016. 10. 12.
게재확정일 : 2016. 10. 20.

Abstract

A Study on Parents Counseling Difficulty for Youth Companion

Rho, Sung-Duk · Jung, Jae-Woo · Kim, Tae-Sung ·
Kim, Kyung-Hee · Lee, Mee-Hyun · Bae Hee-Bun
Korea Youth Counselling & Welfare Institute
Korea Youth Counselling & Welfare Institute · Sang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difficulties of Youth Companion(YC) in parent counseling. For this investigation, nationwide 366 YCs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The survey items are consisted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importance and progress of parents counseling, difficulty degree of parent counseling. Research analysis was preceded, and it identified difficulties of the parent counseling into the several factors; the YC, parents, and the environment, and examined the difference difficulties degree of parent counseling by YC's age, level of education, marriage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Finally it suggests the ongoing studies are needed afterwards such as parent counseling intervention program based on the difficulties of parent counseling of YC.

Key words: *Youth Companion, Parents Counseling, Youth Counseling, difficulties of parents counseling, survey*